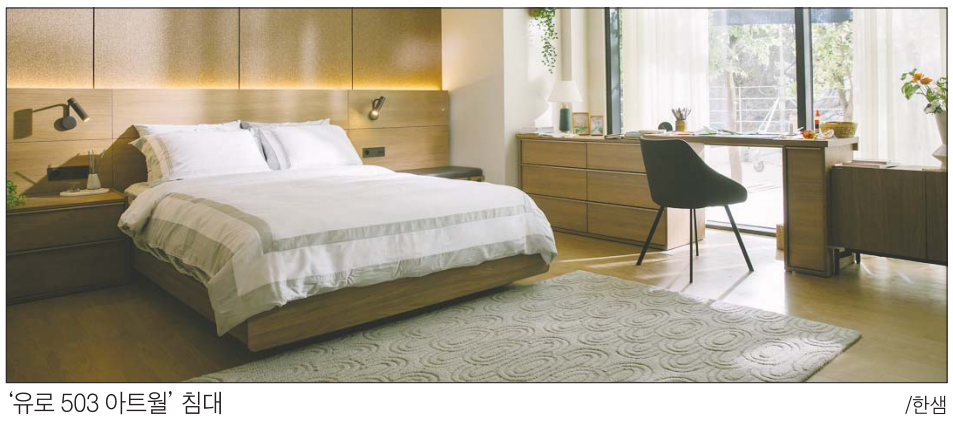

'유로 503 아트월' 침대 /한샘

통합 컨트롤러로 침실을 호텔처럼

한샘 '유로 503아트월'

한샘은 봄을 맞아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은 '홈족(Home+族)'을 위한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가구 신상품을 자사 오프라인 매장인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대리점'에서 출시했다.

'유로 503 아트월' 침대는 아트월처럼 고급스러운 벽판넬을 활용해 호텔식 침실을 꾸밀 수 있는 제품이다. 무드조명, 핀조명 등 간접 조명은 호텔 같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콘센트, USB 충전포트, 조명스위치를 하나로 모은 통합 컨트롤러는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한샘은 브라운, 아이보리 색상의 패브릭 패턴으로 침실공간을 웜톤의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하는 '밀란 304 댄디' 붙박이장도 함께 선보였다. 공간활용도를 높이는 '파우더장'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유로 504 데코 슬라이딩' 붙박이장은 미닫이 도어를 적용해 좁은 신혼집 침실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유로 405 브리' 리클라이너 소파는 부드러운 질감의 브리 치즈에서 이름을 따온 제품이다. 이태리 펠리밀라노사의 가죽을 사용, 가죽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플렉싱' 가공법으로 부드러운 착석감을 극대화했다.

'유로 503 디아고' 식탁은 고가 제품 위주의 세라믹 식탁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순도 100%의 12㎜의 두께감 있는 통 세라믹을 적용, 세라믹 상판과 강화유리를 이중으로 접합한 타사 제품 대비 월등히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복합창호로 디자인·단열 한번에 해결

KCC '뉴하드윈V9'

KCC가 단열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알루미늄(AL)-폴리염화비닐(PVC) 일체형 복합창호 '뉴하드윈V9'을 출시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복합창호는 외부에 면하는 쪽의 외창에는 알루미늄을, 건물 안쪽으로 접하는 내창에는 PVC를 적용해 만든 창호를 뜻한다. 알루미늄 창의 미려한 디자인과 높은 내구성, 그리고 PVC창의 우수한 단열성 등 각 창의 장점만을 취했다.

이번에 출시한 뉴하드윈V9은 기존 뉴하드윈 V7 제품 대비 알루미늄 적용 비율을 30% 이상 낮추고 PVC 적용 비율을 높였다. 알루미늄 재질이었던 외창을 PVC로 대체하고 표면에 알루미늄 캡을 씌우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미려한 외관은 유지하면서도 단열성은 극대화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뉴하드윈V9은 '노 화이트' 컬러 콘셉트를 적용해 PVC창호의 백색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제품 설계 단계부터 컬러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 창호 안쪽 면은 다크 브라운 컬러를 적용한 공압출 창틀

'뉴하드윈V9' /KCC

프레임을, 바깥쪽 면은 알루미늄 재질로 다양한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타입도 다양하다. 건물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분할 슬라이딩 일반형 타입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자재를 적용해 다양한 타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외부 알루미늄 캡이 적용된 슬라이딩 이중창, 리프트 업 슬라이딩 이중창, 입면분할형 이중창, 유리난간일체형 이중창 및 단창에 이르기까지 총 11개 타입의 제품을 구현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니즈를 폭넓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편의성 더해 꿀 같은 신혼재미

봄과 결혼은 늘 새로움과 출발, 설레임을 가져다준다. 코로나19가 보금자리를 새로 꾸리는 신혼부부들의 사랑은 막을 수 없다. 가구, 가전, 인테리어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도 더 좋은 제품과 더 많은 혜택을 내놓고 신혼부부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이 갈수록 깐깐해지고, 가성비·가심비를 위주로 제품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친환경과 첨단 기술을 접목, 편의성까지 곁들여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주요 회사들이 올 봄 신혼부부들을 위해 제안하는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밥알·기름 완벽 세척 감성적인 주방 연출

SK매직 식기세척기 '터치온'

SK매직이 세척력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 파워워시 식기세척기 '터치온'으로 소비자들을 손짓하고 있다.

터치온 식기세척기는 SK매직만의 세척 기술을 한층 개선한 '파워워시' 기능을 탑재했다. 상·중·하단 회전 날개에서 강력한 물살의 세척수 분사 및 세척 전 불림 기능과 70~80도씨의 고온수 세척·헹굼을 통해 눌러붙은 밥알, 기름 때가 있는 조리 용기를 완벽하게 살균·세척할 수 있다.

특히 손잡이를 없애고 '터치 온' 버튼을 만들어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문을 열수 있고, 리얼 스테인리스 소재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또, 도어 하단의 LED 불빛으로 제품의 작동 상황을 확인하고, 감성적 주방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오염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알아서 세척할 수 있는 '스마트 코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49분이면 완료되는 '스피드 코스', 잔여 수분을 자연건조할 수 있는 '자동문열림 기능', 조작부를 도어 상단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히든 컨트롤' 기능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부에 아스팔트를 사용하지 않았고, 국내 최초로 UV살균 램프 및 정수필터도 채택했다.

SK매직 터치온 식기세척기는 영화 기생충에서 상류층의 상징, 극중 박사장(이선균 분)의 고급 저택에 사용된 영화 소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파워워시 식기세척기 '터치 온' /SK매직

안티슬립 기능으로 안전·안락함 두토끼

LG하우시스 'LG Z:IN' 바닥재

LG하우시스가 내놓은 'LG Z:IN(LG지인) 시트 바닥재 은행목' 'LG Z:IN(LG지인) 시트 바닥재 뉴청맥'은 중·저가 바닥재 시장에서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이다. 두 제품 모두 표면에 미끄럼을 줄여주는 안티슬립 기능을 적용, 합판 마루 대비 약 1.2배 우수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췄다.

'LG지인 시트 바닥재 은행목'은 세련되고 미니멀해진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했다. 우드 본연의 질감이 잘 구현된 '마곡 오크', 거칠면서도 소프트한 콘크리트 감성 디자인의 '샌드 스톤', 대리석 패턴으로 공간에 현대적인 감성을 부여하는 '비얀코 마블' 등 모던한 느낌의 컬러와 패턴이 추가됐다.

'LG지인 시트 바닥재 뉴청맥'은 기존 '오크' 수종 단일 우드 패턴에서 느릅나무 수종의 '엘름', 밤나무 수종인 '체스트넛' 패턴이 추가됐다.

인기 벽지인 'LG지인(LG Z:IN) 벽지 베스띠'도 지난달 새로 선보인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트렌디한 디자인을 갖췄다.

새롭게 출시한 '2020 베스띠'는 '레트로 모던', '보타닉 가든', '어반모던' 등 세가지 테마의 16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모던한 레트로 공간을 구현하는 '스톤 회벽'과 '회벽 페인팅' 패턴, 펜드로잉과 풍부한 직물 질감으로 숲의 안락함을 구현하는 '포레스트' 패턴, 은은한 광택감과 모던한 대리석 느낌으로 시크한 모던 공간을 구현한 '트라버틴' 패턴 등의 인기가 예상된다.

'LG Z:IN'시트 바닥재 /LG하우시스